

안경환의 '법과 문화'



남북의 창- '통일은 대박'인가?

“나에게 조국은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작가 이병주(1921~1992)의 비장한 수사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보다는 한반도의 주민으로 살고 싶다.” 5.16 쿠데타를 ‘민중혁명’으로 포장한 ‘박정희의 장자방이자 정도전’이었던 황용주(1918~2001)의 평생 염원이었다.

일제 말기의 지식청년들은 이민족에 빼앗겼다고 되찾은 산하에 두 개의 조국이 들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철저한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두 사람이 국사범으로 옥고를 치른 것은 개인적 불운을 넘어 민족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할 수밖에 없었다. 두 지식인의 패이론 주장대로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다. 한반도에 두 개의 합법정부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이다. 실로 슬픈 일이다. 남은 과제는 행여 다시 하나 될 깊은 없는가? 그게 요원하면 그때까지 어떻게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1978년 12월, 나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었다. 아시아게임 폐막일에 열린 축구 결승전을 관람한 것이다. 열전 끝에 남북한 공동 우승이라는 감격 어린 축제를 나

는 감회를 잊지 못한다. 당시는 축구 실력 뿐만 아니라 국력도 엇비슷한 두 나라였다. 북한사람들도 덜 경직되었고 터무니 없는 생떼와 신경질도 덜 부렸다. 그로부터 36년, 안방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관람했다. 그 시절과는 달리 인공기도, 북한 애국가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제약 없이 접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남쪽이 붉은 색 유니폼을 입었다. 한때 그 색은 대한민국에서 불운의 상징이었다. 축구에서 남북의 남파기 승리를 나누었다. 그러나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두 나라는 스포츠나 국력에 있어 차원이 달라졌다.

폐막식에 북한 고위층 3인방이 베풀 참석했다. 이어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것 같은 기대가 부풀더니만 다시 냉각기류가 엄습해 왔다. 일부 탈북자가 주도하는 민간단체가 북녘 땅을 향해 선전 전단을 날리자, 성난 북한군이 총질을 했다. ‘최고 존엄’ 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 내의 인권문제도 국제정치에 오르지 북한정권의 입지가 더욱 악화되었다. 남은 무기는 핵과 억지뿐일지도 모른다.

작가 이문열은 새로 펴낸 자전적 소설 ‘변경’에서 한반도를 아메리카 제국과 러

시아 제국이 각축하는 변경으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물러간 그 자리에 전래의 중주국, 중국이 되돌아왔다. 애당초 우리 산하의 분단은 국제정세의 소산이듯이 재통일 또한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투어 주도권을 행사하려 든다. 일본도 은근히 관심과 이해관계를 들이민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통일 담론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경박한 장사꾼의 심리가 내비치는 듯하여 기분은 개운치 않다. ‘로도 복권’ 당첨처럼, 마치 통일이 되면 일확천금이라도 생길 듯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느낌마저 든다. 북의 입장에서는 ‘북진통일’ ‘흡수통일’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남한의 통일원칙을 강요하는 듯한 위기감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것처럼 비장하게 목청 돋우어 통일 노래를 외치던 세대가 물러나고 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마저 사라지면, 더 이상 통일에 목을 땀 사람은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성취해야 할 당위가 아니라, 이런 저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되어 버렸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 박 대통령도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회의를성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계속하는 법’이라며 딱 막힌 ‘5.24 체제’를 타파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동안 강경일변도로 비치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그러기를 바란다.

통일은 길고도 험한 과정이다. 만약 통일이 김기협(의) ‘해방일기’ 구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난리다. 전쟁 또는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은 안 하지만 못하다.

행여 로도 복권처럼 ‘대박’으로 얻은 통일이라면 수천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할 민족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 교류, 평화의 연습 끝에 얻은 통일이라야 진정한 통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게 닫혀 있는 ‘남북의 창’이 활짝 열려야만 한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칼럼

섬김의 행복



김성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를 창립하였고 어린이들을 전도해 확장 일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거기, 나한자들을 돌보고 싶어 명의 어린이들을 양자, 양녀로 삼아 기르기도 했습니다. 22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우리나라 백성을 섬긴 서서평은 만성 풍도병인 스프루에 걸려 54세에 소천 하였습니다. 양림동 선교 동산에 그녀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을 한국 땅, 서양인들이 미개한 나라로 생각했을 한국 땅에 간호사로 들어와서 22년을 섬기게 했던 열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는 섬김의 행복일 것입니다. 서서평은 섬김을 통해서 마음에 느껴지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과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힘을 희생함이 있어야 섬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들어 있는 섬김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기는 운전

을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 길도 요리조리 잘 끼어들고 앞질러 가면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서 속도를 줄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차의 속도를 줄여주고 양보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도록 희생해 주는 것이기에 섬김입니다. 이런 작은 희생이 더욱 안전한 교통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3개 조로 나누어서 한 달에 3번 도시락봉사를 합니다. 약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NGO 단체에서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해 줄 도시락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전달해 주는 봉사입니다. 한 달에 3번이 결코 많은 회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3번의 섬김이 우리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도시락 봉사를 시작할 때 된

기가 있습니다. 그 단체 지부장님이 “목사님, 도시락 봉사해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부터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 희생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섬김이 저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우한 해외 아동들과 결연을 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는 불우한 아동들에게 매달 3만 원을 후원하여 공부를 시켜주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수십 명의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후원결연식을 할 때 우리에게 호소하기 위해 오셨던 CCM가수 최인혁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중저가의 옷과 구두를 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비싼 옷과 구두를 신는 것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한 아이를 공부시켜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나누고 섬기면서 행복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고

아시아문화광장이 빛날 때



박선정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 기획단장

고 있다. 그리스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에게 원형극장의 연극 관람은 가장 매력적인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터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야외공간을 바라보면서 영롱하게도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을 오버랩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인간의 상상과 욕망이 만나 즐기는 축제의 공간은 닫힌 내부공간 보다는 야외공간이 더욱 적격이라는 사실이다.

일상에서 예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까지 축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에 많은 복합문화시설들은 야외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터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예술센터라는 영국의 사우스뱅크센터와 이어진 야외광장에서는 연간 300개 이상의 축제가 내부 공연장과 전시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열리고 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이벤트는 상시적으로 개최되어 사우스뱅크센터 관람객 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 공간마케팅의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모델이기도 한 싱가포르의 에스플라네이드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민족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야외공

간에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서로 다른 장르와 분야간 연계와 순환을 통해서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동원리로 작동된다. 그리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지하건물과 지상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건축양식이 미덕이다. 건물 옥상 등 지상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건물들이 ‘L’자 형태로 배치되면서 중앙에 마당이 존재하는 우리 전통가옥구조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빛의 숲’이라는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다섯 개의 야외공간이 탄생되었다. 전당의 대표 광장인 아시아문화광장을 비롯해 잔디밭인 다목적 이벤트마당, 정보원 옥상광장, 어린이문화원 옥상광장 그리고 5·18 민주광장이 그것이다.

아시아문화광장이라는 야외공간이 광주시민과 만나는 첫 지점이 10월 18일 열리는 ‘2014 문화의 달’ 개막행사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10월에 열고 있는데 광주는 2004년에 이어서 두 번째다.

문화의 달 개막행사 프로그램은 무엇 보다 아시아문화광장이 내재하고 있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흥미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맛볼 수 있는 터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영상과 다원적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는 정면의 메인 스크린과 객석 양쪽의 대형 사이드 월을 통해 입체적 영상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LED와 레이저, 홀로그램을 이용해 무용수, 퍼포머를 투입해 인터랙티브한 미디어아트를 완성할 것이다. 또 전통국악실내악단 연주, 판소리와 춤으로 엮은 가무악은 전당의 성공적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 동아시아문화도시 파드너인 중국 취안저우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온 축하예술단 공연도 관객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원의 콘텐츠는 전당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간이 아시아문화광장을 비롯한 야외공간이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통로이면서 전당에 활기를 공급하는 열정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당의 야외공간 활용방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社說

전남 ‘초고령사회’ 재앙 되지 않게 하려면

전남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통계청 표본조사에서 4년 전 이미 20%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8월 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돌파했다.

안전재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남 인구 190만 317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38만1211명으로 20.0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지난 1988년 고령화사회(7% 이상), 2003년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어서던 전남의 고령화는 OECD 국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전국 최초’이자 두 번째인 전북·경북보다도 4~5년이나 앞섰다. 8월 말 현재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7.19%, 전북은 17.07%에 머물고 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복지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기초연금

과 복지시설, 돌봄서비스 등에 투입되는 전남의 올 노인복지예산은 56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44억 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이른 고령화로 개인이나 사회가 노후 대비에 실패하면서 부양비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 노인 학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노인 인구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지자체를 떠나 법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전남에서 정부가 다양한 노인정책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모범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도 일본 후쿠오카현의 ‘70세 현역사회’ 프로그램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일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화재에 무방비라니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상당수가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고 한다. 점포 대부분이 자동화재·속보탐지 및 비상벨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가스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15일 한국 소방안전협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소재한 전통시장 19곳(점포수 2064개)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소화·경보시설 18.9~19.8%, 피난 10.8%, 상수도 소화 3%, 가스시설 설비도 13.7%에 그치는 등 평균 설치율은 17.33%에 불과했다.

또 화재안전시설 가운데 노후율도 무척 높게 나타났다. 화재예방 27.94%에 달했다. 화재안전시설 10개 중 8.2%는 불량이라는 것이다. 전기설비에 피복이 벗겨져 있고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유도등과 피난로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특히 전통시장 전체 137곳 중 조사된 19곳에서 이렇게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장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가연성 물질도 많이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광주 대인시장과 양동시장, 양동복개상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만 19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19곳 시장 측은 시장 활성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화재안전시설은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예산을 긴급 투입해 설비 보강과 보수에 나서야 한다. 화재에 대비한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위험등급제 실시, 정책성 보험 도입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설’처럼 전해지던 김남주 시인이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왔다. 남민전 사건으로 10년의 감옥 생활을 마친 후였다. 검은 빨대 안경, 단단한 기운. 그가 시낭송하는 걸 들으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시인의 아들 이름이었다. ‘김도일’. 노동의 가치를 예찬했던 그는 노동자들이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

그의 시는 가슴에 박힌다. 연극 ‘푸르른 날’에 삽입됐던 ‘학살2’, 노래로도 많이

옥중시

활을 했다. 열혈 독립투사로 3년간 수감됐던 그는 외동딸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다. 그 중 196호 분을 책으로 묶은 게 유명한 ‘세계사 편력’이다. 아버지의 역사 강의를 들은 딸 인디라 간디는 두차례 인도 총리를 역임했다.

“일제히 거울을 보기 시작한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제히 제 얼굴을 훑기 시작한다 허겁지겁/ 피 묻은 제 손바닥을 문지르고/ 일제히 시치미를 떼기 시작한다/ / 아무도 제 얼굴에 책임이 없다.” 시인의 시는 여전히 따끔하고 아프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